

# “164t이나...” 가슴 졸이는 양식 어민들

### 사고인근 256어가 양식... 어획량 감소 등 피해 예상

### 가라앉은 기름 수거 불가능... 해양생태계 치명적

## 여수 기름 유출



록하며 290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주로 여수 일대에서는 어류와 패류, 갑각류, 해조류 등이 많이 잡히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띠가 넓게 퍼지면 어획량 감소 등 추가 피해도 예상된다.

사고 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삼일동 신덕마을 어촌계장 김종기씨는 “마을 앞바다에서 해마다 바지락을 캐 8000여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시가면 기름이 뒤덮어 더 이상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덕마을 주민들의 주수입원 중 하나였던 갯벌과 전복의 생산량 감소도 불가피했다.

문제는 기름띠가 일부 제거되더라도



3일 기름유출로 폐허가 된 여수시 삼일동 신덕마을 해변에서 휴척포를 손에 쥔 공무원과 군인 등 관계자들이 돌과 모래를 뒤덮은 기름띠를 일일이 닦아내고 있다.

도 피해가 수년간 지속한다는 점이다. 바다에 한번 유출된 기름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기름유출 사고가 나면 바다 물 밑에 사는 저서 생물이 급감하는 등 추가 피해가 잇따른다는 것이다.

또 바다에 가라앉은 기름은 수거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남아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더

치명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 1995년 여수시 소리도 부근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로 여수 앞바다는 물론 일본 쓰시마섬 인근까지 기름띠가 퍼져 3800여ha의 양식장이 황폐화됐고, 15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내일 판문점서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 北 일주일만에 응답... 상봉일시는 언급안해

남북은 3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핵심자 실무접촉을 오는 5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5일 실무접촉'에 동의해 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5일 또는 6일에 남북이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핵심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곧바로 “북측이 우리의 제의를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5일 남북핵심

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북한의 이산가족 실무접촉 동의는 우리 정부가 이달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지난달 27일 제의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이날 통지문에서 우리가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이제라도 이산가족 상봉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제일 빨리, 최대한 빨리 (상

봉 행사가)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실무접촉 하루 전인 4일 대 표단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실무접촉에서 17~22일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는 우리 입장을 다시 북한에 거듭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최소 2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실무접촉으로 애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2월 중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북한이 키리졸브 연습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직접 거론하거나 남 시 문제 등을 돌보기 시작했고 시 민들은 북한의 추위 속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불만 없이 기다렸다는 것이다.

어떤 권력이나 자본의 힘에 기대 특혜를 받는 관법없이 묵묵히 직서를 지키며 정부의 방침에 따르고, 기다리는 캐나다 시민들의 정신을 통해 우리가 ‘법규를 그대로 지키며 공평하게 살자’는 깨우침을 주는 글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박지사, 전 직원에 본보 ‘한승원 칼럼’ 정독 권유

### 22일자 ‘국가·공공기관을 믿고...’ 시민정신·공공의식 강조

박준영 전남지사가 본보에 연재 중인 ‘한승원 칼럼’을 전 직원에게 읽어 볼 것을 권유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박 지사는 최근 ‘국가·공공기관을 믿고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광주일보 지난 22일자 한승원 칼럼을 직원들에게 정독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일부 직원에게는 이 칼럼이 담긴 신문 스크랩을 복사해 나눠주기도 했다.

이 칼럼은 최근 한파로 캐나다

토론토지역 30만 가구가 정전을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캐나다 정부는 제일 먼저 병원, 지하철, 복지시설 등을 돌보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불만 없이 기다렸다는 것이다.

어떤 권력이나 자본의 힘에 기대 특혜를 받는 관법없이 묵묵히 직서를 지키며 정부의 방침에 따르고, 기다리는 캐나다 시민들의 정신을 통해 우리가 ‘법규를 그대로 지키며 공평하게 살자’는 깨우침을 주는 글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이에 대해 박 지사는 3일 “캐나다는 공공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이 칼럼에 담겨있다”면서 “(캐나다의 경우처럼) 시민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도청 직원들에게 이 글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또 “남원시 등 국내 일부 지자체들이 질서 등 공공의식을 강조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전남 도청에서도 이를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野 “정부 기름유출 대응 아마추어 수준” 해수부 “여수 유류오염 피해 보상 지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3일 지난 설에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가 미숙한 대응을 했으며 평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름유출사고 나흘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도, 유출량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보상 문제는 원유사와 보험사가 알아서 하라’며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발언을 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초기 대응에서 또다시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왔다. 최초 피해보

고는 정확하지 않았고, 정부 대응은 안이었다”면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 당사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남도당 차원에서 현장 상황분부를 설치하는 한편, 4일에는 소속 의원들과 중앙당 당직자 200여명을 내려보내 방재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보상을 약속해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오늘부터 해양오염 조사

6일 피해대책협의회 개최

여수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 지원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사고 해역 해양오염 영향을 조사하는 한편 6일 여수해양환경청에서 주민 대표와 원유사 GS칼텍스 등이 참석하는 피해 대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보상방안 논의를 시작한다.

해수부는 유조선이 아닌 송유관에

서 기름이 샌 사고이므로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이나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 대상이 아니며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박이 무리하게 접안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을 전제로 “시설주인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안을 덮은 폐유를 제거하는 작업은 앞으로 1~2주 걸릴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 짜통 조기 천대반된 ‘부세’, 중국인은 황금물고기 대접

# 전남도 수출유망품목 선정 양식 나서

장상속에 눈 먼 일부 일직업이 ‘마른 굴비’라며 내놓는 ‘부세’가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귀한 생선으로 거듭나고 있다. 부세를 찾는 중국인이 늘면서 전남도가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 인공종묘 생산에 나섰다.

전남도는 3일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 중 하나인 부세에 대한 인공종묘와 양식기술을 개발,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부세를 전략 품종으로 선정, 육성에 나선 것은 중국인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제주한림수협 위관장에서 60cm 크기의 부세 1상자(10마리)가 중국발 구입 열풍에 역대 최고가인 81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한때 ‘짜통 조기’라며 상자당 20만~30만원에, 말 그대로 도매금으로 넘겨졌던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부세는 한자로 대황어(大黃魚)로 중국에서 ‘황금물고기’로 불리며 부유층에서 최고로 선호하는 어종이다. 황금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기호에 딱 맞는 생선인 셈이다.

하지만 국내 연간 소비량은 2012년 기준 9520t에 달하지만, 국내 생산은 불과 15t으로 자급률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억5000만원을 들여 참조기산양연구센터에서 부세 양식에 나서기로 했다. 참조기 양식은 이미 어미 생산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지만 부세는 이제 시작단계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31226-종-52297호

# 노안시려 노안교정

박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리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기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품과 미레가 보장됩니다.

##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전화 각화지점: 268-6163 품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원로 246번길 3